



KIPA 사회봉사단, 태안지역 봉사활동 나서



우리회 KIPA 사회봉사단은 지난 2월 22일 기름유출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안반도 구례포해수욕장을 다녀왔다.

이날 박상원 상근부회장 등 임직원은 이른 아침부터 태안에 도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검게 변한 해변의 바위를 흡착포로 일일이 닦아내며 피해 상황을 몸소 체험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직원은 “아직까지도 바위의 검

은 때가 있고, 모래바닥에는 까만 모래가 남아있어 더욱 많은 일손이 필요한 거 같다”며 “뒤늦게라도 이렇게 작은 힘을 보탬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상원 상근부회장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태안을 살리기 위해 수고하는 임직원들의 모습이 너무 대견하다”며 “우리회는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회 임직원들이 바위에 붙은 기름때를 제거하고 있다

우리회는 지난 2월 28일, 제20회 정기이사회 및 제13회 회원총회를 개최함